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5월 28일(주일) 제1149호

한국 교회 갱신은 목회자로부터

내일부터 3일 동안
'Desiring God 컨퍼런스'

드디어 내일(29일)이다. '디자이너링 갓(Desiring God) 컨퍼런스'가 양재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디자이너링 갓 컨퍼런스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와 평신도들을 위한 '저녁부흥집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29일과 30일 양재 사랑홀에서 열린다. 미 최고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복음으로 빚어진 마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배롭게 여기기', '복음으로 빚어진 정신: 그리스도의 영광 알기', '복음으로 빚어진 입: 그리스도의 영광 선포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특강도 이어진다. 29일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한 시대의 축복이 되는 요셉-리더십'을, 30일 김춘근 교수(JAMA 설립자)가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인테그리티'를 주제로 강의한다.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2,300여 명의 목회자, 신학생, 교회 리더십,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참가한다.

평신도들을 위한 저녁부흥집회는 30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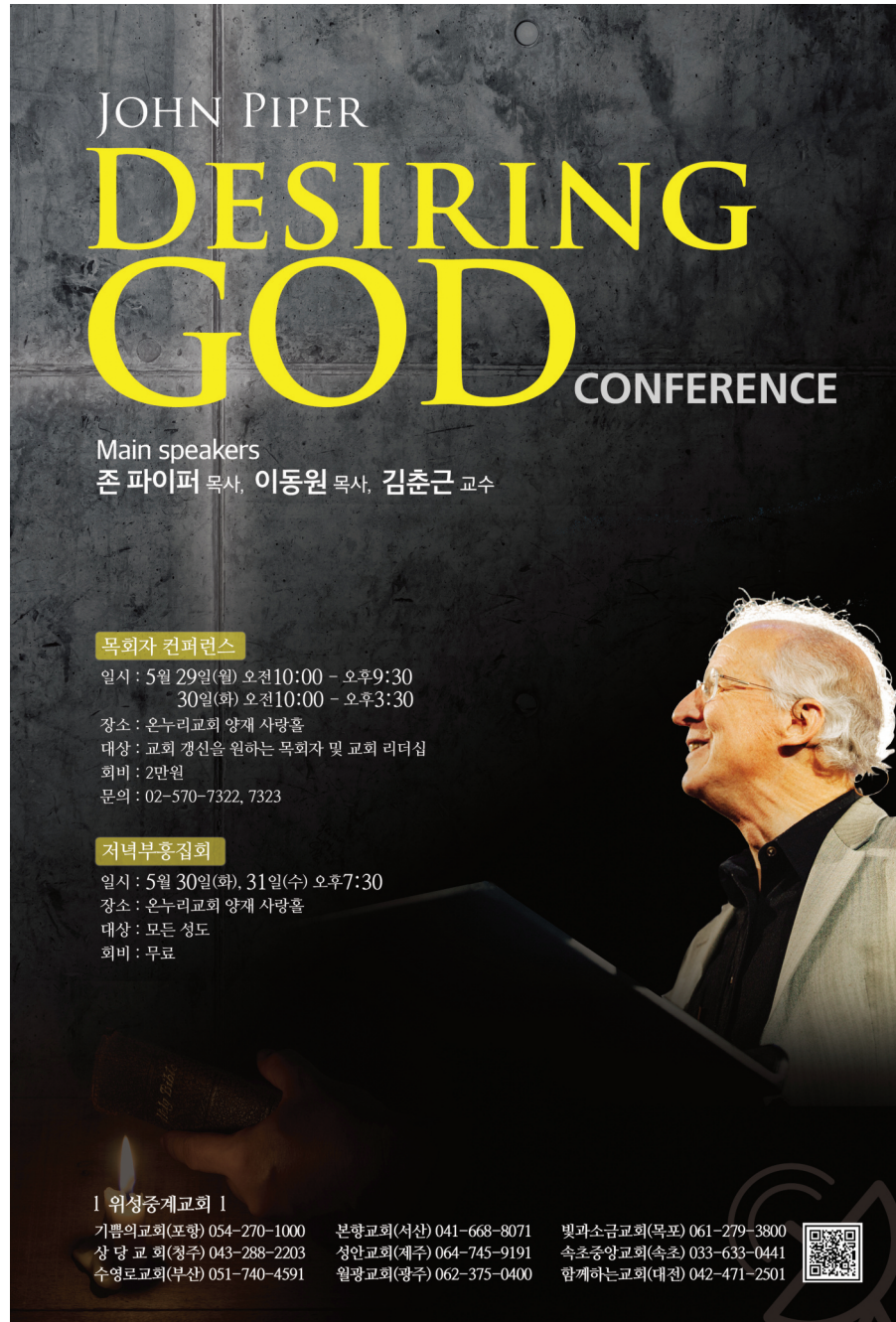
오후 7시 30분 양재 사랑홀과 31일(수) 오후 7시 30분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막 오른다. 존 파이퍼 목사가 '그리스도의 긴급한 부르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존 파이퍼 초청 목회자 컨퍼런스와 저녁부흥집회는 국내 9개 교회(포항 기쁨의교회, 서산 분향교회, 목포 빛과소금교회, 청주 상당교회, 제주 성안교회, 속초중앙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광주 월광교회, 대전 함께하는교회)에 위성중계된다. 31일 부산 수영로교회 집회실 황은 양재 사랑홀에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33년 동안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섬겼고, 디자이너링 갓 대표로 활동 중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 등 40여 권이 넘는 저서가 있다.

문의: 02-570-7322, 7323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JOHN PIPER
DESIRING GOD CONFERENCE

Main speakers
존 파이퍼 목사, 이동원 목사, 김춘근 교수

목회자 컨퍼런스
일시: 5월 29일(월) 오전10:00 - 오후9:30
30일(화) 오전10:00 - 오후3:30
장소: 온누리교회 양재 사랑홀
대상: 교회 갱신을 원하는 목회자 및 교회 리더십
회비: 2만원
문의: 02-570-7322, 7323

저녁부흥집회
일시: 5월 30일(화), 31일(수) 오후7:30
장소: 온누리교회 양재 사랑홀
대상: 모든 성도
회비: 무료

1 위성중계교회
기쁨의교회(포항) 054-270-1000
상당교회(청주) 043-288-2203
수영로교회(부산) 051-740-4591
분향교회(서산) 041-668-8071
성안교회(제주) 064-745-9191
월광교회(광주) 062-375-0400
빛과소금교회(목포) 061-279-3800
속초중앙교회(속초) 033-633-0441
함께하는교회(대전) 042-471-2501

QR Code

내일부터 3일간 존 파이퍼 목사가 한국의 목회자, 리더십,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마리아행전 'SENT 보냄 받은 자'

6월 22~24일 서빙고 본당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SENT 보냄 받은 자'를 주제로 막 오른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돌아키는 자', '예수 닮은 자', '보냄 받은 자'를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기도회가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윤희 교수(FWA아시아대표), 김하중 장로, 김지연 약사 등이 강의한다.

올해는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저녁집회도 진행된다. 6월 22일과 23

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마리아 정체성'과 '마리아 영상'을 주제로 저녁집회가 열린다. 직장인을 위한 저녁집회 참가자도 24일 오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6월 14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직장인을 위한 저녁집회 1만 원).

문의: 02-3215-335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SENT 보냄 받은 자

이규현 목사, 유기성 목사, 이재훈 목사
김윤희 교수, 김하중 장로

2017. 6/22(목)-24(토)
온누리교회(서빙고 본당)

마리아행전
목·토 오전 10:00 - 3:30
목·금 저녁 7:30 - 9:30
토 오전 10:00 - 3:30

직장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

문의: 02-3215-3355

Onnuri

오늘 '카운트다운' 장충실내체육관

존 파이프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오늘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예배는 장충실내체육관에서 드린다.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자리를 옮겨 장충실내체육관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대학청년부 연합예배로 드리는 오늘 집회에서는 존파이퍼 목사(베들레헴 침례교회)와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카운트다운 집회는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3,200명의 청년들이 거룩한 예배자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다.

이승혁 대표MC(여호수아공동체)



2017 예배 선교 컨퍼런스
WORSHIP & MISSION CONFERENCE
Countdown

SPEAKERS
존 파이퍼 목사, 김윤희 교수, 이재훈 목사, 김하중 장로, 유기성 목사, 김지연 약사

2017년 5월 26일(금)-27일(토) 온누리교회 양재 사랑홀
2017년 5월 28일(주일) 장충실내체육관 연합집회

문의: 02-3215-3355 (이재훈 목사) 02-3215-3356 (김윤희 교수) 02-3215-3357 (이규현 목사) 02-3215-3358 (김하중 장로) 02-3215-3359 (유기성 목사) 02-3215-3360 (김지연 약사)

Onnuri

와 박해원 선교 MC(하늘공동체)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특집대담 10주년 맞이한 러브소나타

“가장 큰 수확은 선교와 전도의 즐거움 발견”

교단과 교파 뛰어 넘어 교회가 협력하게 만든 구심점
전도대상자들에게 맞는 전도방법 끊임없이 고민해야



‘러브소나타 10주년 특별좌담회’ 2부에 출연한 일본 실행위원 목회자들. 왼쪽부터 오오이 미츠루(이타바시교회), 호소이 마코토(주조그리스도교회), 나가이 노부요시(도호쿠중앙교회), 아다치 다카오(오사카시온교회), 이토 요시코(시로이아에펠로십처), 김경훈(러브소나타, CGNTV 본부장) 목사.

2007년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일본 열도를 돌면서 25회나 개최했다. 이를 위해 2,020개 일본 교회가 협력했다. 일본 교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실현됐다. 이를 기념하는 대회가 7월 25일과 26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막 오른다. 그 뜻 깊은 대회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일본CGNTV가 특집 방송 ‘러브소나타 10주년 특별좌담회’를 제작한 것. 그동안 러브소나타를 실현시켰던 일본 실행위원 목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을 회상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봤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아케다 목사: “2007년 11월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시민크리스마스를 행사를 열었는데 1,000명 모으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천석이나 되는 행사장을 빌려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사사키 목사: “아오모리 러브소나타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일본CGN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아오모리에서 러브소나타를 개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키마루 목사: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을 나도 사랑했다>를 읽고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양에서 신앙고백을 하시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양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는데 러브소나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맺은 결실이 무엇입니까?

리키마루 목사: “시모노세키는 교회가 23개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교회들이 고립되어 있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20개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시모노세키 뿐만 아니라 규슈 북부지역까지 방문해서 홍보하고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지방도시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력교회들이 모였습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협력하게 되었고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사사키 목사: “맞습니다. 러브소나타는 교회와 교회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단과 교파의 차이로 일본 교회 간 교류가 없었는데 러브소나타 집회 이후 지역교계 목회자들의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오모리 러브소나타 이후에는 ‘러브 아오모리 지저스 미션’이라는 지역교회 협력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다치 목사: “오사카에서는 러브소나타 집회가 두 번 열렸는데 청년들이 부흥했습니다. 러브소나타 전야제인 가스펠나이트 행사에서 청년 85명이 헌신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 만들기 위해서 20~40대 젊은 전도사들이 열심히 준비한 결과 청년 1,200명이 모였고 그들 중에서 85명이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일본 교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나가이 목사: “2011년 4월 동북부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역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개최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일본에서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교계 네트워크가 대지진 이후 각 교회들이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목사: “러브소나타는 10년 전 하용조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비전의 문을 열어 주셨고, 이재훈 목사님께서 일본 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본 선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한 면도 있어 대회 당 약 3백여 명 정도의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회마다 5백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일본을 향한 사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브소나타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시작된 집회입니다. 일본인들에게 한류문화가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아다치 목사: “지금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예전처럼 사람들이 마구 달려들 정도는 아니지만 신앙을 가진 일류 아티스트의 공연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플루트 연주자 송슬나무 형제를 초청한 예배에 많은 미신자와 새신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호소이 목사: “엔터테인먼트적인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큰 희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둡고 경직되어 있던 일본 교계에 밝고 신명나는 기독교 문화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토 목사: “그동안 일본의 젊은이들이 교

회를 딱딱하고 어둡고 경직돼 있다고 느꼈는데 러브소나타 같은 세련된 집회를 보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와 전도의 즐거움을 스스로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김경훈 목사: “나가사키에서 러브소나타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일입니다. 일본기독교단의 한 목사가 전도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잘 지키는 것이 전도’라고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면서 러브소나타 참가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고, 그 렬수록 더욱 더 열심히 러브소나타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아름다운 배려 문화가 있는데,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복음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어 어떤 전도 방식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한일 교계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러브소나타는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한류문화를 소개하고 복음도 전하는 탁월한 집회방식이라는 것을 소개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브소나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가이 목사: “일본스러운 것도 좋지만 국제적인 집회, 차세대와 함께 하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령층을 어떻게 전도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대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전도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다치 목사: “온누리교회가 문화전도, 맞춤형 전도 등 다양한 전도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일본 전도에 적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행사에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신선한 자극을 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목사: “일본 문화도, 일본어도 잘 모른 채 시작했던 러브소나타와 CGNTV 사역이 일본 교계 리더십들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협조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브소나타 동경 참가자 추가 모집
A팀 40명(7월 24일~27일)
문의 02-749-1149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신명기 16:1~15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영적인 성숙은 과거를 다르게 보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아름다운 얼굴이 망가져 버렸지만 그 쓰라린 고통과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강의와 간증을 들으면서 잊을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얼굴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면 “아니요. 저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쓰라린 고통을 주었던 과거를 지우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텐데 이지선 자매는 과거의 예쁜 얼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고 선택합니다. 그 기억 속에 묻혀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기억은 우리의 미래를 가두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창문입니다.

출애굽과 양과 염소의 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를 정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념일의 기원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기억하는 절기를 제정하심으로써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절기는 7개입니다. 안식일도 포함한다면 8개지만 안식일을 제외하면 7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매뉴얼 같은 책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동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장소를 옮기게 하셨을까

요. 몸을 옮김으로써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연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억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빔 월을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을 기념하라. 아빔 월에 그분이 너희를 밤중에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소나 양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올려 드리라.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1~3절).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passover)’라고 하는데,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 때문에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13절), “여호와께서 그문을 넘으시고”(23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27절).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민중 봉기를 통한 애굽 대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학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결정적인 사건은 문설주에 발라졌던 염소와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속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

을 기억하는 절기인 동시에 장차 오실 모든 인류를 대속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무교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로 통합해서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로 나누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다음 날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고전 1:7~8).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절기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들이 문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속 받은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누룩 없는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의 빵이라고 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누룩 없는 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의 누룩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오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첫 번째 열매의 절기’라

고 불리는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사이에 안식 후 첫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리 추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 날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의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여기 ‘첫 열매’가 초실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열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열매들을 계속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뜻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에 이은 무교절과 초실절은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추수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추수의 절정, 칠칠절과 오순절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7주를 세는데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그 날부터 7주를 세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의 양대로 낙헌제를 드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돌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서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딸들과 네 남종들과 여종들과 네 성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신 16:9-11).

‘곡식에 낫을 대는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곡식에 낫을 대서 나온 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째 7일 씩 7주를 셉니다.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한자로 ‘오순(五旬)’은 오십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펜타코스트(Pentecost)’, 헬라어인 ‘펜테코스테’ 모두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50일이 지났으니 추수의 절정에 이른 시기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5월은 가정의 달 _ 3. 고부갈등과 장서갈등



부모는 떠나보내고, 자식은 떠나야 한다

성경적 고부·장서관계 만들기가 해법, 모델은 ‘나오미와 룯’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남편이 중재자 역할 제대로 해야

“봄별은 며느리 짝이고 가을별은 딸을 짝인다.”
“시집살이는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가 더 맵다.”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 자 들어간 시금치도 안 먹는다.”

고된 시집살이와 관련된 말이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호되면 ‘시’ 자가 들어갔다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할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경도 초월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부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하는 서양에도 고부갈등이 있다.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스페인), “못된 시어머니는 등 뒤에도 눈이 달렸다”(러시아)는 서양속담이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구촌 모든 여자들이 고부갈등을 경험한다. 고부갈등이 다가 아니다. 장인장모와 사위의 전쟁을 일컫는 ‘장서갈등’도 불만하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왜 생기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자매는 패션 디자이너다. 외국 유학도 하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A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아주 부자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만하다. 그런데 임신하면서 고부갈등이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했다. 큰 선심 쓰듯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등쌀에 결국 어렵사리 쌓은 경력을 포기해야 했다.

B자매는 지방에 사는 시어머니가 택배로 생선(생선)을 보내주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다. 생선을 좋아하지도 않고, 생선 손질 할 줄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좋아하는”은 이유로 자주 보내준다. 시어머니가 보낸 택배가 올 때마다 B자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어떤 때는 자신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도우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고부관계는 골이 아주 깊은 것 같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단골이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며느리와 친정을 상대로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결혼을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거나, 독립 시키지 않고 곁에 두려고 한다. 며느리에게 새벽부터 집안일을 강요하거나 직장인 며느리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강권한다. 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하거나 성에 안 차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며느리에게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까지 한다. 드라마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이와 같은 고부갈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악독한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생각이 다른 며느리들의 횡포도 불만하다.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결국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해놓고 “네가 잘못하니 내가 잘못했어”하는 꼴이다.

최근에는 장서갈등(장인장모와 사위)이 급부상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장서갈등을 남편들의 이혼사유 1위로 꼽은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결혼정보업체 A사와 재혼전문사이트 B사가 재혼상담 신청자 329명의 이혼 배경을 조사했는데 남성들의 이혼사유 1위가 장서갈등(처가의 간섭 및 갈등)이었다. 26.2%나 차지했다. 여성들이 고부갈등(시가의 간섭 및 갈등)을 이혼 사유로 꼽은 것(17%)보다 무려 9.2%나 높은 수치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등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장서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돌싱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남성은 아들, 여성은 딸로 가정)가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종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돌싱남성은 24%가 장서갈등을, 돌싱여성은 21.7%가 옛 애인과의 교류를 꼽았다.

돌싱여성이 고부갈등이 생기면 이혼을 종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를 가장 걱정하는 것에 비해 남성들은 자신의 아들이 장모나 처가로부터 끊임없이 간섭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고부갈등은 한 가정을 깨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세대차이에서 비롯된다. 쉽게 말해 시어머니와 장인장모는 옛날 사람이다. 부모세대의 삶의 방법과 지금 세대의 삶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반말하고, 시장에 집꾼으로 데려가고,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 것은 남편이 하늘이고, 고분고분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시어머니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다. 젊은 며느리들의 부부관은 시어머니의 부부관과 다르다. 남편을 친구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반말하는 거고, 똑같이 직장에 나가 돈을 버는 처지니까 가사도 나누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같이 장보고 같이 저녁상 차리는 것은 부부가 오순도순 지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둘째, 교육수준의 차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어머니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딸자식까지 공부시킬 여유가 없었다.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그러나 요즘 며느리들은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이다. 대학은 기본이고 외국유학까지 나온 재원들이 많다. 교육수준의 차이가 인식, 가치관, 세계관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고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잘못된 애착관계에서 비롯된다. 공들여 키운 아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을 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은연중에 며느리가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아들을 빼앗아 간 나쁜 여자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홀시어머니 외아들에게는 절대 시집가지 말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잘못된 애착관계가 고부갈등을 부른다.

고부갈등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한다. 세대를 넘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나온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불효가정에서 불효자가 나온다는 의미다. 고부갈등을 겪는 가정에서 다시 고부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어머니가 모진 시집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에게는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를 아니 더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했다”면서 말이다. 문제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고된 시집살이를 인내했던 시어머니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 고분고분 받아줄 리가 없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이혼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수시로 구박하고 남편과 이혼을 종용하는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목 졸라 죽인 사건, 80대 시어머니를 죽인 후 정화조에 시체를 유기한 며느리, 식사 중 욕설을 퍼부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반감을 품고 시어머니를 목 졸라 죽인 사건, 남편과 시어머니와 불화를 빚어오던 40대 여성이 자신의 7살 난 아들을 껴안고 투신한 사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체조제를 먹여 살해한 사건 등 반인륜적 패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까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고부갈등은 행복한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해결책은 없나?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

룻기의 주인공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름다운 고부관계의 주인공이다. 나오미는 진실로 며느리를 이해하고, 사랑해주었으며, 손자를 잘 양육한 모범적인 시어머니다. 룻은 진실로 시어머니를 신뢰하고 섬긴 효부다. 나오미가 모든 시어머니의 사표(師表)가 된 이유는 딱 하나다. 며느리 룻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한 시어머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이방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룻 1:6) 즉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일을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룻 1:13)라 겸허히 받아들였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 고부 · 장서갈등은 세대차이, 잘못된 애착관계가 원인 틀린 것 아니라 다른 것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

또한 나오미는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은 시어머니였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두 며느리에게 “고생스레 자신을 따르지 말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라”며 사랑으로 권면했다(룻 1:8-9).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부관계였는지 두 며느리의 반응으로 잘 알 수 있다.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라고 권면하는 나오미에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소리 높여 울며 입을 맞춘 후 모압으로 되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룻 1:16)며 기꺼이 나오미를 따랐다. 나오

미와 며느리 사이가 돈독하고 허물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재혼해 낳은 아기(오벳)를 품에 품고 참 기쁨으로 양육자가 되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잘 양육한 믿음의 할머니였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가깝고 정다운 사이였다. 서로의 관계를 따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사랑하고, 고맙고, 기쁘고,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돕고, 감싸는 사이였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고부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칭송케 하셨다.

고부·장서 갈등과 관련된 웃기고 슬픈 농담이 있다.

“하와의 장수 비결은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들이 아담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으로 꼽는다. 왜냐하면 장모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 8년차 김준희 성도(수원 온누리교회)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서로 존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많이 내려놔야 해요. 무엇보다 고부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들이 자기역할은 안 하면서 아내에게 시부모 잘 챙기라고 강요하면 문제가 생겨요. 장인장모와 사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품 안의 자식이 아니다. 온전히 떠나보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거쳐 오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격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한다. 물리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 아들은 어머니를, 딸은 친정어머니를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 다시 만나야 한다.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 사랑만이 해답이다(벧전 4:8).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말이다.

아름다운 고부/장서 관계는

1. 서로 가깝고 정다운 사이
2. 따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3. 고맙고 기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돕고 감싸준다
4. 내 아들, 내 딸의 행복이 달려 있음을 잊지 않는다

전문가 기고



박승자 강사
(두란노 나오미로이스학교)

고부갈등은 잘못된 애착관계에서 비롯된다.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한 아내가 반대급부로 아들에게 집중하다가 발생한다. 아들이 ‘대리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내를 맞이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시어머니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들 빼앗아간 경쟁자로 인식하면 고부갈등이 생긴다. 장모와 사위의 갈등인 장서갈등의 이유도 간단하다. 친정엄마와 딸이 너무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친정엄마가 손주도 많이 봐주고, 가까이 살고 자주 드나들면서 장서갈등이 불거진다.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의 핵심은 바로 ‘떠남’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친정엄마는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

얼마 전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며느리에게 부탁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본가에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당신 아들 아침밥 굶기지 않을 테니까 제발 체크하지 말라’는 의견과 ‘시누이 혹은 동서네 아이랑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말라’는 의견도 많았다.

권사 시어머니, 장모 시아버지라고 다를까. 일반인 가정보다 크리스천 가정이 겪는 고부갈등이 더 어렵다. 교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부모와 장인장모가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보기에 권위적이고 신실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관이 한국 가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유교적 습성 때문이다. 떠나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떠남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작이다. 결혼한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연합하고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지리적, 물리적,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 떠남을 의미한다.

부모들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스스로를 쿨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면 잘 떠나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휴대폰번호 끝자리를 처갓집 번호로 바꿨을 때 아들을 사돈택에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제야 필자는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

았다. 자녀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시어머니들이여, 며느리는 적이 아니다. 며느리가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야 할 동역자이다. 나오미와 룻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룻을 좋은 며느리로 만든 것은 나오미의 신앙이었다. 룻의 고백이 이를 대변한다. 과부에, 아들까지 먼저 여인, 빈털터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슨 볼 것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룻은 자신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본 하나님을 따랐다.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젊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 혹은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먼저 어른들이 이해해주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 시택을 엄격하게 경계하고, 시어머니나 장모의 이야기를 곱감게 듣는 며느리와 사위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시부모와 장인장모는 또 한 명의 부모이다.

핵심은 ‘떠남’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자녀와 부모 285명 참석 ... 79% 결신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막 올랐다.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행복드림 콘서트만큼 좋은 도구가 없었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 것이 사실이다. 걱정은 기우였다. 맞춤전도집회 참가자 79%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모들과 그 모습에 감격한 자녀들의 눈물이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 조혜민 기자 hm030@onnuri.org



① 부모님들이 O·X퀴즈에 참여하고 있다.
② 정금영 어르신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다.
③ 손녀가 정성껏 쓴 편지를 읽어 드리고 있다.

행복드림 콘서트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65세 이상 부모를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맞춤전도집회다. 언제나 그렇듯 행사장은 설렘과 기대, 걱정과 염려가 공존했다.

손자의 고사리 손을 잡고 온 전도대상자도 있고, 시부모를 모시고 온 며느리도 있었다. 시급하게 난생 처음 교회에 온 부모님들의 어색함부터 해결해야 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둘러보았다.

자녀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보였다. 부모님이 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이다. 이날 분위기는 마치 잔치집 같았다.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섬김도 돋보였다. 자기 부모 대하듯 극진히 섬겼다.

성은주 성도는 미국에 살다 얼마 전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초청했다.

“미국에서 지내다 잠깐 한국에 왔는데 행복드림 콘서트를 알고 부모님을 초청했어요. 저는 5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께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성은주 성도 아버지 성영환 어르신은 “행복을 주제로 열린 콘서트답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모님을 초청한 이들 모두가 성은주 성도와 같은 마음이었다. 부모님이 난생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그러면서 행복드림 콘서트보다 부모님을 전도할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했다. 음식은 입에 맞는지, 자리는 불편하지 않는지 등도 세심하게 보살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정성스레 준비한 근사한 식사를 마치고 행복드림 콘서트가 시작됐다. 국악팀 ‘가야랑’이 첫 무대를 장식했다. 가야랑이 선보이는 국악 공연이 얼마나 흥겨웠던지 부모들은 의자를 돌려가며 집중했다. 가수 이무송과 노사연 부부도 등장했다. 몇몇 부모들께 꽃송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개그맨 이홍렬의 공감토크쇼도

이어졌다. 이홍렬의 재치 있는 입담이 어르신들을 박장대소하게 했다. 이날 오후의 권사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낭송했다. 곧이어 한편의 영상메시지가 흘러 나왔다. 그 영상 속에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함께 녹아 있었다.

영상메시지에 등장한 이현정 성도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면서 “어머니와 행복드림 콘서트에 참석한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성도의 어머니 임태성 어르신은 “딸이 평소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이 목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

다.

이날 맞춤전도집회의 백미는 자녀가 부모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말쑥드리지 못했던 자녀들의 속마음과 사랑이 담긴 내용이었다. 용기를 내 부모님께 편지를 읽어주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얼싸안아줬다.

남성구 어르신은 “며느리랑 아들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외식상품권도 받아서 너무 좋다”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준 교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남성구 어르신의 며느리 조은경 성도(서빙고 공동체)는 “아버님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임미경 성도(찬양공동체)는 “엄마가 무척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고 했고, 김길자 어르신은 “교회에서 참 고마운 일을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못난 딸이 사랑하는 엄마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네요. 처음에는 강한 성격의 엄마가 어려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경준이 돌잔치 때 초대하지 못했는데 참석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엄마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던 아빠를 보고 제가 그동안 불효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를 친엄마처럼 대해드리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친자식하고도 싸우고 화해하잖아요.

혹시 저희들이 엄마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각자 사는 게 바빠서 부모님께 좋은 추억하나 갖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엇보다 괴팍(?)한 아빠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엄마, 저는 신앙을 갖고 나서 사랑과 용서를 배웠어요.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제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더라고요. 엄마에게도 이 평안을 전해주고 싶어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열정이 가득하며, 건강하게 사시는 엄마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들 곁에 오래도록 계셔주세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 셋째 딸 서영희 올림

힘들고 외로울 땐 미얀마예배를 찾아가라

동포들을 도울 수 있다면 ... “감사는 하나님께”



▲ 동포들을 돕는게 가장 즐겁다는 미얀마예배 성도들(좌측부터 망망, 네민툰, 루카 형제).



▲ 미얀마예배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린 투이 형제와 릴리 자매.

타국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가늠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묵묵히 견디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함께해주는 공동체다. 여기 이주민들이 힘들고, 외로울 땐 가족이 되어 주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친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다. 바로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다. 미얀마예배가 이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 ‘세상 둘도 없는 친구’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힘들고 어려울 땐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를 찾아가라.”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이 힘들 때 떠올리는 말이다. 그만큼 미얀마예배가 이주민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얀마예배를 섬기는 성도들 덕분이다. 미얀마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동포들을 돕는 일이야.”

미얀마예배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못 받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동포들을 내 일처럼 나서서 돕고 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결해준 다음에는 어김없이 “감사는 하나님께”하라며 전도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를 찾아오라는 권면도 잊지 않는다.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때로는 가족,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 소속 성도 30명이 안산에서 생활하는 미얀마 이주민 1천 명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그들에게는 동포를 돕

는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이다. 미얀마예배를 섬기고 있는 망망 형제도 동포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동포들을 도울 수 있다면 늦은 밤까지 밥을 먹지 못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섬김 열정이 대단하다. 동포에게 도와달라는 전화가 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망망 형제가 밤낮 가리지 않고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이다. 망망 형제처럼 미얀마예배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동포들을 돕는데 헌신하고 있다. 고국과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동포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는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거처가 없는 동포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감사는 하나님께”하라며 잊지 않고 전도한다. 미얀마예배 소속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을 받은 동포들이 고향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교회로 향하고 있다. 루카 형제도 그랬다. 그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하나님도 만났다. 루카 형제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나는 예배였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나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정도였죠. 한국에서도 교회에 몇 번 갔는데 예배가 와 닿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직장에서 발생했다. 루카 형제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동료들과 다툼이 잦았다. 동료들과 관계가 좋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낼 곳이 없었다.

“일은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지낼 곳이 없어서 억지로 일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루카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안산M센

터 미얀마예배 성도들이 그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쉼터를 제공하고, 예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렸다. 루카 형제에게 달라진 거라곤 미얀마예배를 섬기는 성도들과 만난 것뿐인데 그토록 힘들던 두 가지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했고, 예배도 회복했다. 세례까지 받았다. 그날 이후 루카 형제는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 홍보대사가 됐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이주민들이 있으면 안산M센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좋은 곳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민툰 형제도 미얀마예배를 만나 힘들기만 했던 한국생활이 즐거워졌다. 네민툰 형제는 한국생활 6개월 만에 미얀마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었다. 알 수 없는 복통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다. 미얀마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았는데 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복통을 참으면서 이 악물고 일했다. 가정형편 때문에 꼭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에게 미얀마예배가 큰 힘이 되어줬다. 네민툰 형제에게 쉼터를 제공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줬다. 그 덕분에 네민툰 형제가 매주 주일 미얀마예배를 드리게 됐다.

“처음에는 쉼터를 제공해준 것이 감사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안산M센터에서 만난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수님 같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넘쳤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네민툰 형제는 요즘에는 예배드리는 맛에 산다. 어서 빨리 주일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배도 아프지 않아요.”

꿈에 그리던 결혼식부터 축구대회까지

릴리 자매는 미얀마예배 덕분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다. 릴리 자매가 결혼을 결심한 것은 2년 전이다.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혼

자 결혼식을 준비하기에는 아는 것도 없었거든요.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덧 2년이나 지나있었어요.”

지난달 릴리 자매와 투이 형제가 꼭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미얀마예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 성도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청첩장을 제작하고, 축가를 연습하고, 웨딩플라워를 만들었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던 결혼식 준비가 척척 진행됐다. 그렇게 21일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렸다. 미얀마예배 성도, 안산M센터 봉사자들이 어우러진 세상에 둘도 없는 결혼식이었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더 많은 이주민들에게 안산M센터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맞춤형 도집회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맞춤형도집회에는 미얀마에서 온 이주민 92명이 참석했다. 난생 처음 교회에 온 청년들도 많았다. 서바테이 형제도 이날 처음 교회에 왔다. 처음에는 교회가 어색했는데 봉사자로 참석한 부친 온누리교회 사랑공동체 성도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한국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계속 웃어주고 고개 숙이며 인사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주민들을 부려먹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극진히 대접해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21일에는 축구대회가 개최됐다. 미얀마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데는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은 축구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경기도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6개 팀 선수 120명이 참석했다. 그야말로 천국잔치였다. 축구도 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다. 축구대회를 계속 열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쥬리에서자 형제도 축구대회에 참석해서 오랜만에 신나고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

“미얀마예배 덕분에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요. 미얀마예배와 안산M센터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다큐영화 ‘서서평’과 ‘서서평 정신’

CGNTV가 제작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가 누적 관객 9만6,368천명을 돌파하며 주목할 만한 흥행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영화 서서평을 관람한 관객들은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CGNTV 함태경 경영본부장이 극장가에 붙여 닥친 서서평 신드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주

“극장 개봉 한 달 누적관객 9만6,368명, 좌석 점유율 21%, 역대 국내 다양성 영화 52위.”

영화 ‘서서평’의 현재진행형 성적표다. 서서평은 경쟁한 상업영화의 총공세 속에서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6일 ‘서서평’과 함께 개봉한 제작비 추정치가 100억 원의 ‘특별시민’ (최민식 주연)이 실질적으로 종영했다는 점에서 ‘특별시민’의 1.6% 제작비로 만들어진 ‘서서평’의 선전은 기적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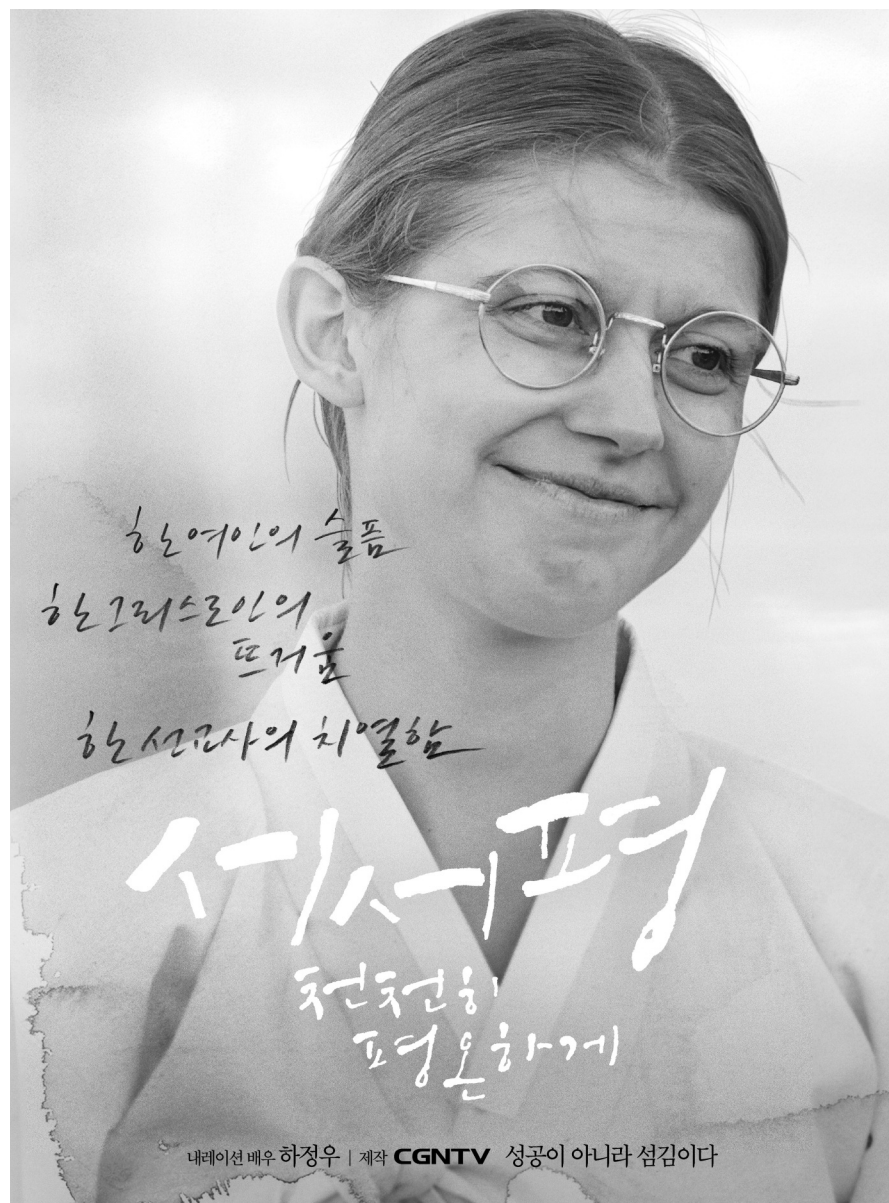
특히 역대 개신교 다큐영화 1, 2위인 ‘회복’ (누적관객 15만7,793명), ‘소명’ (9만7,092명)이 개봉 4~5개월이 지나서야 10만 관객을 바라봤던 것을 감안할 때 ‘서서평’의 기세는 놀랍다 못해 경이롭다. 상업영화로 구분돼있는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 2016년 3월 극장 개봉)는 누적관객 9만4,825명을 기록했다.

입소문을 타고 서서평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교회, 기관, 기업, 군부대, 동교회 등의 단체 (대관)관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종 - ‘미답지’에 도전하다

다큐영화 ‘서서평’의 시작은 소박했다. 서서평(엘리자베스 J 쉘평·1880~1934년) 선교사가 온누리교회에 정식으로 소개된 때는 2015년 1월 4일.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복음의 빛진자’ 설교에 등장한 5명의 선교사 중 한 명이었다. 담임목사님은 그해 12월 24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설교를 통해 CGNTV가 서서평 선교사 다큐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때만 해도 CGNTV 제작진은 서서평 다큐 시놉시스도 완성하지 못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자료는 고작 6장, 관련서적도 몇 권 되지 않았다. 1880년부터 1934년까지의 전 생애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직계가족과 그 후손은 물론 그녀가 조선에서 입양한 고아 14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다.

상당 기간 조사와 흔적 찾기에 나선 끝에 서서평 선교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동역자였던 로이스 H 스와인하트 선교사가 서서평에 대해 기록한 책 <Glorious Living(영광의 삶)>과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백춘성 장로의 책 <천국에서 만남시다>는 가뭄 속 단비 같았다. 제작진은 서서평 선교사가 스와인하트 선교사에게 자신의 숙네를 털어놓은 스토리를 드라마로 재연하기



로 했다. 재연촬영 일정은 함평, 광주, 전주, 다시 광주, 함평, 대전, 익산까지 4일과 제주 2일이였다. 태풍 여파로 다리가 물에 잠겨 광주 부동교 신 촬영은 중단되기도 했다.

서서평 선교사가 출석했던 광주제일교회(당시 금정교회) 성도들이 조연으로 출연해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독일 비스바덴, 미국 뉴욕, 전라도 일대, 제주도를 돌아 1년 동안 제작된 ‘서서평’ 1차 버전은 2016년 성탄 전날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상영됐다.

첫 제작비 예산은 수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후원자의 손길과 배우 하정우 씨의 내레이션에 음악, CG, 색보정 등 영화화 작업이 덧붙여져 극장에서 상영하기에 손색이 없게 됐다. 2015년 ‘블랙마운틴 - 잊혀진 조선을 찾아서’,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등 굵직한 다큐를 통해 CGNTV의 제작 역량이 어느 정도 증명됐지만 다큐영화에 도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미답지’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았다. 미지의 나라, 조선에 서서평 선교사가 온 것도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였다.

공감 - ‘충격’은 ‘눈물’로 이어지다

역사 속에 감추어진 ‘서서평’이 고개를 들자 충격은 울림과 공감을 넘어 감동의 눈물로 이어졌다. 특히 영화 말미 주인 없는 방에 남겨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는 글귀와 초라하기 그지없는 서서평 선교사의 묘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조선의 가난과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조선인처럼’이 아닌 ‘조선인’으로 처절하게 살다간 서서평 선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은 크리스천이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제작진은 물론 서서평 역을 소화한 배우 윤안나(Anna Elisabeth Rihlmann) 자매도 촬영 내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꼈고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졌다고 고백했다.

“아픔이 느껴졌어요. 친어머니에게 세 번이나 버림을 당하고, 먼 나라에서 힘든 삶을 살고, 펜조차 들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지고, 영양실조까지...”

관객들의 평가는 다양하고 폭발적이었다.

“시각 부흥회이자 영혼의 사경회였다.”, “일평생 목회를 해온 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럽다.”, “더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했던 나와 결별이 시작됐다.”, “서서평 ‘관람 전 나’와 ‘관람 후 나’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서서평’에는 여인의 슬픔, 크리스천의 뜨거움, 선교사의 치열함이 담겨져 있다. 누군가의 상처와 고난 극복기는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이 수가 되었다. ‘서서평’은 작은 밑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지, 감추어졌던 과거가 밝혀져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 특히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 리더십이 어떤 것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단 -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서서평 선교사가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틀(고아와 과부)을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다큐영화 ‘서서평’은 세속화된 신앙 속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예수의 뜻을 온 몸과 마음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알 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바른 안목과 시대정신, 역사의식을 갖고 삶으로 증명할 때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 상황과 사회의 요구가 바뀌었다. 사회가 크리스천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고 있다. 교회는 국가와 민족,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 안에만 머물 때 사회와는 멀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준비된 크리스천들과 삶으로 소통과 공감, 감동과 울림을 이 땅에 전해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에 맞게 잠시 숨겨놓은 크리스천들이 많다. 제2, 제3의 서서평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CGNTV는 그들과 함께 한 영혼을 위해라면 더 멀리도 갈 것이고, 더 가까이도 갈 것이다. CGNTV가 위성방송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번 아웃(Burn Out)’된 누군가가 CGNTV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공을 쫓는 시대에 역류를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이 ‘그의 밖에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팔로우십’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CGNTV는 극장 상영과 별도로 7월까지 MK(선교사자녀), 흡사모, 재소자, 군인, 직장인, 기업인, 법조인 등과 놓여온 미자립교회, 교회, 학교 등을 위한 특별상영회를 마련한다. 영화 ‘서서평’이 받은 사랑을 남김없이 나눈다는 취지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등을 위한 글로벌 상영회를 비롯해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등 자막 작업을 거쳐 전 세계 교회와도 나눌 예정이다. ‘서서평’은 앞으로 국적과 언어, 세대, 계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할 미중물이 될 것이다.



함태경 경영본부장 (CGNTV)

“아이들은 맞으면서 크면 안 된다”

아동인권 모르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애들은 맞으면서 크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매는 없다. 과거와 달라진 교육 및 육아방법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모들이 있는데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사랑의 매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의 매가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맞으면서 컸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고 여기는 문화에 익숙한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아직까지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아동인권과 아동학대를 모르면 안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선주 판사가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위를 설명해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주



문선주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선교부)

대다수 부모들이 아동학대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상에서 씨름하며 산다. 이런 평범한 부모들에게 아동학대는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대개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이 그다지 흔한 사건은 아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학대를 정하는 내용이다. 즉,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학대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한다. 그런데 부모가 보호를 다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잘 없다. 어긋난 가정환경 때문에 소년원에서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의 수가 생각보다 상당하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조차 부모가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이런 사건들을 3년간 재판했지만 법정에서 울지 않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가정환경 조사결과는 많이 다르다. 보호와 교육을 명목으로 한 부모의 신체적 체벌이 보인다. 부모의 형편이나 감정 기록에 따라 아이들이 방치된다. 부모의 일방적인 진로 결정도 때론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까지 될 수 있다. 운동선수로 키우려다 중단한 아이나 지나친 학구열로 어긋난 아이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때로는 아이가 사고치는 것도 힘들고, 돌봐줄 형편도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소년원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겠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다.

보호의무와 결정권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부모를 포함한 아동보호시설의 장 등의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어떤 권위와 결정권을 갖는

것은 보호의무에 기한 것이다. 그런데 보호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오히려 학대에 쓰이는 셈이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학대조차도 보호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학대가 될 수 있는 모든 체벌과 강요가 보호를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경계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유엔에 가입한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는 아동의 권리가 잘 나타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

기반인 미국은 유엔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 중에 위 협약이 하나님 이 주신 부모의 자녀양육 권리와 책임에 부합하지 않고, 부모의 권한을 침식한다는 주장도 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조차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완전히 옳은 결정만 할 수 있다면 아동을 위한 협약도, 어떤 권리도 인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크리스천 역시 동시대의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깨닫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가장한 문화들이 하나님의 원리에 부합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속도가 빨라진 시대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양육은 자녀세대가 구습에 얽매이게 하는 위험도 있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 인정의 범위는 다를 것이다. 단지 아동의 권리

가 아동학대 피해자이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부족부터 교육방임까지 다양하다. 학습에 대한 방임은 학교 부적응을 가져온다. 부모의 늦은 귀가로 또래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다 비행성향이 심화된다. 자녀의 비행성향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시작된다. 부모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하면서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것이 보호소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정서적으로 보다 섬세한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방임과 유기로 사랑이 결핍되면 낮은 자존감과 위험에 노출된 환경의 영향으로 쉽게 성매매로 유입된다. 한번 성매매를 경험하고 나면 자존감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성매매 이익을 공유하거나 착취하는 집단에게 더욱 헌신하고, 성매매수자인 성인남성에게 사랑받는 것이라고 성매매 상황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2013년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아동들은 통상 10세 미만이다. 학대아동들이 저항이 가능한 나이에 접어들면 비로소 학대를 피해 가출을 시작한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여학생이 학년 초부터 동급생을 때려 보호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다. 가해 여학생은 10살 때 부터 엄마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아동보호 시설로 도피했던 아이였다. 중학생이 되자마자 며칠씩 밖에서 밤을 새며 섰배(?)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결국 몇 번 더 나에게 재판을 받고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보호소년들이 비행성이 심화되어 있고, 가해자인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이 드러나면 범죄로 인한 보호처분의 대상일 뿐 아니라 아동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호소년들은 사회에서 분리되고, 내 자녀, 내 가족과 떨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도 사랑받고 상처를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서울소년원(남자)과 안양소년원(여자)에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평범한 교회의 주일학교처럼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문의: 010-6836-7611). 보호소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공동체 합의가 법률의 해석이다. 사회공동체가 공감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들의 모습이 아동인권과 보호소년들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사랑은 세상의 문화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권,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등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각종 아동기본권 보장을 선언하면서 표현, 양심, 집회 등의 자유권, 프라이버시권, 의사표현권(freedoms of expression, conscience, and association, the rights of privacy, to express views)도 아동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라는 접근은 부모의 절대적 권위나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 혈연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사회일수록 부모의 아동에 대한 결정권은 절대적이고 불가침한 권한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가 만연하다. 기독교 문화가

를 인식하고, 존중하려는 의식만으로도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모의 결정권한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보호자로서의 의무에 기한 권한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신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학대피해 아동들은 보호대상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아동들(보호소년), 소년법에 대한 기사에는 “갈수록 무서워진다”는 수식이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크고 작은 범죄의 가해자임이 분명한 보호소년들 중 상당수

통일세미나 ‘기독교 입장에서 통일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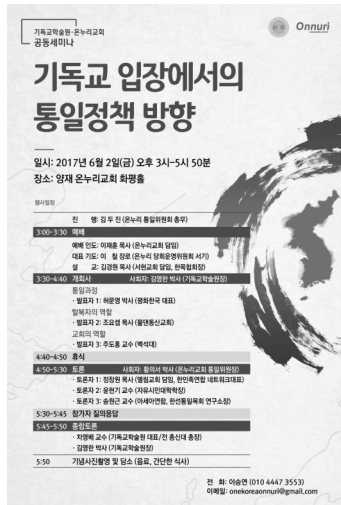
통일위원회 주최, 6월 2일 오후 3시 양재 화평홀

정말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많은 교회와 통일단체들이 통일 이후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사회 재건을 고민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통일 세미나 ‘기독교 입장에서 통일정책 방향’도 이점에 주목했다. 통일 단체들과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통일정책 방향을 나누고, 열린 토론을 통해 향후 다가올 통일 시대를 내다보는 장이 마련된다. 6월 2일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통일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통일세미나에서는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통일과정’, 조요셉 목사(물댄동산교회) ‘탈북자의 역할’, 주도홍 교수(백석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차영백 교수(전 총신대 총장), 정창원 목사(엘림교회) 등은 토론자로 참석한다.

문의: 010-4447-355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비전 공유한 ‘비타민C’ 세미나

중국, 브라질 교계 리더십 30명 참석

2000선교부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드림교회에서 ‘비타민C’ 세미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교계 리더십들과 온누리교회 핵심 가치 및 비전을 공유했다. 비타민C 세미나에는 중국, 브라질 교계 리더십 3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Acts29비전빌리지, 두란노해외 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큐티,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소개했다.

브라질에서 온 Job 목사는 “아마

존 지역에는 신학교가 별로 없는데 BEE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중국에서 온 이예수 전도사는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역 하고 있는 것에 놀랐다”면서 “중국 교회도 온누리교회처럼 사회영역에 헌신하고 싶다” 밝혔다.

한편 비타민C 세미나가 진행된 제주 드림교회에는 중국선교와 한국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MCC’가 세워질 예정이다.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 실시

6월 13일 19시 30분 양재 화평홀

2017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이 오는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JDS, 아웃리치 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 유관기관, 국제부 등 각 부서 아웃리치 담당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해외 아웃리치 안전교육에서는

아웃리치 준비와 진행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아웃리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 및 대처방안을 가르쳐 준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 아웃리치 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문의: 02-3215-3208

차세대 어드벤처 ‘창조탐험대’

6월 3일부터 17일까지 국내 순회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어드벤처가 오는 6월 3일(토)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국내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2017 어드벤처의 주제는 ‘창조탐험대’다. 교사들이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펼쳐진다. 6월 10일

(토) 양재, 6월 17일(토) 수원, 부천, 대전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등록비 입금 후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5월 31일까지 등록하면 1만 5천 원, 당일등록은 2만원이다.

어드벤처는 주일학교 교사 및 여름캠프, 국내의 아웃리치(여름성경

학교, 워십댄스)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3일(화)부터 25일(목)에는 단동과 청도 온누리교회, 25일(금)부터 오늘(28일)까지 대련과 상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문의: 02-3215-3525

입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03-60104

한국어 선교사 52명 배출

2기 한국어 선교학교 수료식

2기 한국어 선교학교 수료식이 지난 20일(토) 양재 화평홀에서 있었다. 2기 한국어 선교학교에서는 한국어 선교사 52명을 배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도균 목사, 김장열 장로, 한국어 선교학교 2기 수료생 등 60명이 참석했다.

김정숙 권사(타교회)는 “한국어 선교학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동기가 되었다”고 했고, 김홍렬 집사(서초A공동체)는 “이주민들이 많아진 이 시점에 한국어 선교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어 선교학교 2기 수료생들은 화성M센터, 김포M센터 등지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탈북민사역 한터 물품·후원금 모집

탈북민사역을 하고 있는 한터에서 업소용 냉장고, 가스스테이블, 의자 등의 물품과 후원금을 모집한다.

문의: 이제민 간사

010-9071-3076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7-86105

온누리교회 한터

5월 세례자

■서빙고	김하리 160910	오승아 161110	한주형 151021	유아	박원욱 이서윤	장원석 김고은
이광호 810618	김정환 조은하	오선용 김소연	한상훈 윤보미	관하민 161217	송주안 160909	정라임 170601
정영자 321201	민준영 160503	옹하린 151026		관태연 하나래	송진호 문재윤	정용구 장은혜
입교	민경환 강소정	옹환진 안소영	■양재	김하엘 151117	안준용 150825	최준영 160327
김혜진 740309	박서진 160309	우주연 150720	김신애 830223	김상원 송현주	안정현 함도화	최일권 권소담
유아	박대호 이현주	우한배 전소정	남지원 831203	김하연 160603	이주안 151128	
김이준 160622	박예인 151019	윤서영 151024	송영호 480419	김형진 한희안	이정호 이희은	■대학청년부
김홍규 이지원	박성태 이현진	윤영상 송남행	이미옥 690818	노현규 160425	이태오 160615	SNS
김이현 160330	박주아 151218	윤홍술 150709	최현순 560616	노현웅 최나현	이재혁 김은주	김보라 830514
김영일 김소현	박인욱 홍정화	윤성진 이은정	입교	박 온 150822	임은희 160208	전희재 900411
김지유 150806	박주는 151212	이하겸 160402	윤 희 690927	박준규 양지민	임재승 최지민	최수련 850820
김문중 조승연	박재형 양윤미	이민구 이경민		박이찬 160304	장사론 161115	



독거 어르신 53명의 특별한 생일잔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한우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사단법인 한우리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26일 용산 아이컨벤션웨딩에서 ‘제10회 산수·미수·백수연 행사’를 개최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53명이 참석했다. 손광진 이사장(사단법인 한우리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힘닿는 데까지 섬기겠다”고 약속했고, 이성희 관장(시

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늘 어르신들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10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한우리복지재단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노준욱 어르신은 “늘 집에 혼자 있는데 오늘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경 기·도·제·목

- 5월 29일(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러브소나타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기를
- 5월 30일(화) 일본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도록
- 5월 31일(수) 모든 초청 대상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 6월 1일(목) 이재훈 목사님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6월 2일(금)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체휼하며 섬길 수 있도록
- 6월 3일(토) 러브소나타 모든 일정과 상황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기를
- 6월 4일(주일)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러브소나타가 되도록

■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 정준용 성도(젊은부부학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된 이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라온 환경과 생각이 달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줬던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으로서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타박하지 않고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요. 말로 상처를 준 일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참 좋았어요. 묵묵히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 나올 수 있었거든요. 마음으로는 당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여야지 하는 생각이 가득한데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결혼 이후 바쁘게 살아오느라 변변히 챙기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불평 없이 참고 견뎌준 당신에게 정말 고맙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과 함께 해온 시간이었기에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이만큼 행복할 수 있었어요.

요즘 당신은 체중계 숫자를 보며 일희일비하고 있지만 지금도 내 눈에는 당신이 참 예뻐요.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그런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여보, 사랑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행복합니다. 항상 내가 당신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모든 행복과 기쁨은 당신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얼마 전 부부학교에서 했던 서약이 떠오르네요.

“나 정준용은 아내 임이지를 아내로 맞아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에게 이 서약을 하면서 눈물을 펄펄 흘렸었죠. 결혼할 때도 같은 서약을 했었는데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기분에 따라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도 했고 외롭게도 만들었어요. 여보, 당신 참 많이 외로웠죠? 혹여 오늘도 나의 무심함으로 외롭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미안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은 시간 동안은 이 맹세를 꼭 지킬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열심히 지킬 거예요. 당신도 그런 나를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다 행이예요. 우리가 아직 젊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Jeseoph, 추행란 선교사(스리랑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때가 많다.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내려고 애쓰다보면 어느 순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어렵고 지루했던 아길마을의 워터공사나 약깎라 임마누엘교회 헌당예배가 그러했다.

지난 3월 약깎라 임마누엘교회 헌당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에는 성인 250명과 차세대 100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사만 목사는 한국에 근로자로 갔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 교회를 개척했다. 20년 전 동두천의 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안흥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복된 소식을 듣고 난 이후 더 이상 돈만 벌 수 없어서 스리랑카로 돌아와 가정교회를 개척했다.

4년 만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방해로 교회 건축이 점점 늦어졌다. 고소고발까지 당했다. 큰 교회 목회자가 되어 스리랑카에 많은 지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인간적인 꿈과 희망이 긴 법정 싸움

개척 12년 만에 헌당예배

을 하는 동안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는 크고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교인들도 고난의 시간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지난 3월 마침내 법정 싸움을 마치고 12년 만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사만 목사는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그에게 “돈도 없는데 왜 성도들 밥까지 먹이느냐?”고 묻는 적이 있다. 그러자 사만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가 동두천에 있을 때 안흥교회 목사님이 주일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포들과 나눠야지요.”

사만 목사는 이런 믿음으로 12년 동안 묵혀왔다. 그에게 약깎라 임마누엘교회 헌당예배는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이다. 개척 12년 만에 헌당예배를 드린 약깎라 임마누엘교회가 강한 믿음의 군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주기를 부탁한다.

■ 힐링캠프를 마치고



/ 구자엽 팀장(서빙고 농어촌선교회)

농어촌지역 목회자 가정과 함께

농어촌선교회는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수시로 농어촌 오지 교회들을 방문한다. 오지에서 목회하면서 영적 외로움에 빠진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을 보면서 농어촌지역 목회자들이 활발하게 교제하고, 사역을 나눌 수 있는 회복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힐링캠프는 그렇게 시작됐다.

농어촌목회자 힐링캠프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냥 농어촌선교회 봉사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이웃 목회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전부다. 사모들이 주인공이다. 농어촌교회에서는 사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사모들이 많이 지쳐있다. 농어촌교회에서 사모의 회복은 목회자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목회자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으로 연결된다. 사모들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농어촌교회 사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이었기에 더 잘 위로할 수 있었다.

농어촌지역 목회자들을 위해 작은 선물도 마련했다. 선풍기, 가방, 옷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했다. 사모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쪽지에 적어냈다. 한 사모는 집안 행사를 위해 가방이 꼭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맞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며 기뻐했다.

경남 산청 황매산을 가득 메운 철쭉꽃을 둘러보기도 했다. 가까이에 있지만 사역하느라 바빠서 처음 와본다는 목회자 가정도 있었다. 힐링캠프를 마치면서 농어촌지역 목회자와 사모들의 표정이 변화된 것이 보였다. 많은 목회자들이 휴식과 회복의 은혜를 맛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목회자 가정이 참석해서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이 있어 더 많은 농어촌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매년 여름 전국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섬겨주신 덕분에 농어촌교회들이 온누리교회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영한다. 올 여름에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온 누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한다.

■ 2기 한국어 선교학교 수료 간증



/ 기세충 성도(노원공동체)

은퇴 이후 비전을 수립하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보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다. 대학 시절에는 선교단체에 들어갔다.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 때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한창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예배와 순모임, 성경공부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선교의 비전을 되찾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고민했다.

내 삶을 준비기, 활동기, 은퇴기로 나눠봤다. 나는 2년 후면 직장을 떠나게 된다.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다. 교사로서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을 접목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한국어 교사, 탈북자를 돕는 일, MK 교사 등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한국어 선교학교 개강 소식이

무척 반가웠다. 혹시라도 필요할지 몰라서 외대에서 한국어교사 양성 과정을 듣고 한국어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때는 막연하게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한국어 선교학교 과정은 달랐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되었다. 매 시간 듣는 강의와 나눔을 통해 은퇴 이후 삶의 비전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었다. “나는 한국어 선교사”라는 구호 제창이 은퇴 이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별 나눔과 발표를 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폭 넓게 교제도 할 수 있었다.

은퇴 이후 한국어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헌신하고 싶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봉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성심을 다해 섬겨주신 팀장님과 봉사자님들, 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조장님과 조원들의 사랑과 관심에도 감사드린다. 한국어 선교학교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해달 장로
(두란노 아버지학교
상임이사)

아버지학교는 ‘청소년 감동캠프’와 ‘가족 사랑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과 장병들이 대상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감동캠프에 와서 “우리 아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잔소리꾼이에요, 세대차이 나요”라고 말한다. 그

랬던 청소년들이 청소년 감동캠프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게임벌칙으로 자녀가 아빠의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고, 아빠는 자녀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쓰고, 자녀는 부모님께 감사한 이유를 쓸 때가 가장 감동적이다. 각자 쓴 글을 읽어줄 때 아빠와 자녀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다.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사랑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라는 말에 한 일등병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군대왔는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요? 끔찍한 소리마세요.”

아버지와 골이 깊었던 병사도 가족사랑 캠프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 가족사랑 캠프의 백미는 수료식이다. 그 자리에 부모님을 초대해서 아빠가 자녀에게 쓴 편지를 낭독해준다.

“아빠가 너를 너무 엄하게 키워서 미안하구나. 칭찬 한 번 제대로 못해주고, 너그러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더 잘 해주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쏟아 내던 병사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아왔던 앙금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또 어디 있을까?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부모자식 사이에 벽이 생기는 이유는 표현이 서툰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그들 모두가 부모와 어른들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높은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자식의 살가운 사랑에 매달라있음을 보게 된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없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느껴지지 않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마 3:17).

가정의 달 5월 우리도 당당하게 외쳐보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이다. 자녀도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고백하자. 필자도 오늘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해야겠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지 못한 내 부모님은 9년 전과 18년 전에 천국에 가셨다.

“아버지, 어머니 진작 고백해야 되는 이 말을 철이 없어서 살아계실 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청년기고

내 사랑 Pole2공동체



박천종 대표MC
(Pole2공동체)

나는 Pole2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2010년 내가 스무 살 때 교회가 궁금해서 친구를 따라 Pole2 공동체 예배

에 나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뜨거운 예배 열기에 매료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덧 8년째가 되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손을 조금만 더 올려서 찬양해볼까’라고 생각하며 전 주보다 손을 1cm라도 높게 들면 뿌듯하기도 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내게 대표MC로 섬길 것을 권유하셨다. 대표MC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 생활하는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졸업을 앞둔 것도 걱정이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참하고 싶었다. 나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대표MC로 섬기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항상 즐겁고 활기찬 Pole2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 역시 즐겁고 활기찬 Pole2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싶어 순종했다. 약 6개월 동안 대표

MC로 Pole2공동체를 섬겼다. 그 섬김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 동안의 섬김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최근에 Pole2공동체 각 순의 부순장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박하게 준비하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맛있는 다과도 먹고, 강의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하는 순장들과 부순장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사역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마음이 금세 잔잔해졌다.

Pole2공동체 MC단은 더욱 끈끈해졌다. 그동안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Pole2공동체 지체들이 하나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베풀어진다. 대표MC로 섬기면서 내 안에 품은 말씀이 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

이 말씀처럼 앞으로도 Pole2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대표MC 임기가 만료 남았다.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즐겁고, 활기차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강미향 목사
(S브릿지)

S브릿지공동체(33-44세 미혼 청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 소속 청년들은 결혼할 때 3주 동안 예비교육을 받는다. 그 때마다 필자가 빠트리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 결혼하면 부부가 죽기 살기로 하나 되라는 것이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정으로 출발했지만 축복의 길을 걷지 못한다. 아무 것도 없이 결혼해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삶에 결실이 있고, 잘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추고 결혼해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삶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자녀가 하나 되고, 이웃과 직장동료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된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열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둠과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힌 담을 열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가정의 축복 척도는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있느냐이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막힘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불편함이 있을

때 빨리 돌아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의 축복과 사역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상대방과 하나 되지 못하면 섭섭함과 실망감이 생긴다. “왜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지?” 혹은 “왜 오해를 하고 있지?”라며 상대방의 미숙한 성품과 삶의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에게 있다. 스스로의 미숙함과 무지,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하나 됨을 막는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갈등과 막힘은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나 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는 것이 깨어 있는 신앙인이다. 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이 생기면 빨리 화해하고 돌아서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갈등과 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힘든 일이 일을 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 만약 죽고 사는 문제라면 덮어두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문제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통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하나 됨의 축복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거룩한 절기를 지키라

풍성한 추수가 절정에 이르게 된 때가 바로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추수가 풍성하게 됐으니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을 보리 ‘맥(麥)’자를 써서 ‘맥추절(麥秋節)’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보리추수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남중, 여중, 이방인, 레위인, 고아들, 과부들 등 모든 이들이 함께 풍족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본문에 ‘낙헌제(樂獻祭; freewill offering)’는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기쁨 ‘낙’, 드릴 ‘헌’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형태와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월절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지정해 주신 절기입니다. 그러나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행 2:1-2).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행 1:4-5).

여기서 ‘며칠 안’은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략 10일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수많은 양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강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성령강림으로 추수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만 명, 수십 만 명에게 복음이 확산됨으로써 영적 추수가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오순절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고난의 빵이었지만 오순절은 기쁨의 빵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의 빵을 하나님께 드릴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자원함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에 담긴 영적 의미입니다. 성령강림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추수의 완성, 초막절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네 아들딸들과 네 남종들과 네 여종들과 네 성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수확물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네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13~15절).

유월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오순절은 추수의 절정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완성입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라는 표현은 추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칠칠절과 오순절이 성령의 오심을 예표한다면 초막절은 최후의 심판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수많은 열매 추수를 마무리 짓는 추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모든 소출을 다 정리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공간에 넣습

니다. 그래서 ‘수장절(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대부분 씨를 뿌리고 거두는 추수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추수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마지막 때는 역사의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시는 심판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은 심판과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요. 7일 동안 집이 아닌 곳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 자체를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생활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광야의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한 초막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장막에 사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실절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의 중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저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절기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시선을 탈북민들에게 돌려야 한다

문화는 민족의 역사, 의·식·주, 사상,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다. 국가의 이념, 사상 역시 문화를 통해 드러난다. 문화는 한민족의 동질성을 확인시키기도 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던 시절 함께 불렀던 노래다. 이 노래는 남한과 북한에서 전해내려 오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산비탈 강바람’, ‘반달’, ‘개구리 노래’, ‘고향의 봄’ 등이 있다.

노래뿐만이 아니다, 남과 북은 언어, 음식 등 다양한 문화를 공유해왔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했던 한민족이 70년 동안 분단을 겪고 있다. 70년이란 세월은 남과 북의 사상, 이념, 역사 등에 깊은 차이를 만들어 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이끌어왔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결국 분단 상황이 남과 북의 깊은 괴리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괴리는 언어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언어들이 많아졌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남한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이도 크다. 아직도 남과 북이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 같지만 분단 이전의 문화 외에는 이념과 사상이 완

전히 갈라져 있다.

그렇다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남과 북이 통일 되었을 때 동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이 부딪히며 생기는 긴장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선을 탈북민들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가 탈북민들을 잘 품어야 그들을 통해 북한의 문화를 알고, 북한 사람에게 갖는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민족 간의 화합과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탈북민들은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많다. 더 많은 탈

북민들이 사역자나 목회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탈북민은 통일시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사역자들이다. 그들이 북한에 가서 무너져 버린 제단을 쌓고, 교회를 세우고, 문화를 전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야 한다.



윤형주 장로
(통일위원회)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걸어온 한 달의 기록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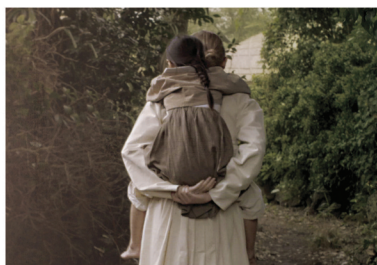
— START! —

4월 20일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 초청

**4월 26일**

전국 극장 대개봉

**4월 28일**

박스오피스 4위 진입

**5월 7일**5월 최고 성수기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TOP10 진입

순위	영화명	예매율
1	특별시민	예매율 25.8%
2	임금님의 사건수첩	예매율 17.9%
3	보안관	예매율 10.4%
4	본노의 절주: 더...	예매율 9.4%
5	서서평, 천천히 평...	예매율 8.4%

5월 3일

좌석 점유율 43.8% 달성

**4월 30일**

개봉 5일차 누적관객 4만 명 돌파

**5월 17일**

4주 연속 다양성 영화 1위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관객수
1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5,952,000명	1,079명	0
2	마히안노의 마계분	5,371,000명	1,199명	6
3	오두막	4,897,500명	771명	4
4	안노의 길	4,527,800명	819명	2
5	푸른노을	4,754,000명	950명	0
6	세월 고문	3,302,000명	394명	0
7	단서	2,362,500명	311명	2
8	강금복	2,061,000명	294명	18
9	박서평	466,000명	235명	1
10	나는 부잣집다	1,714,500명	229명	2

5월 19일주요 언론보도 378건
(3월 5일 ~ 5월 19일)**5월 25일**

누적 관객수 96,368명



올해 개봉한 기독교영화

1위

역대 기독교 다큐 영화

2위

누적 상영 횟수

3,718 번

네티즌 평점 9.28

(NAVER 영화 평점)



관람객 평점 9.44

(NAVER 영화 평점)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특별상영회**로
더 멀리 더 가까이 찾아갑니다.



국내외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곳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해지도록 기도로 함께해주십시오.

